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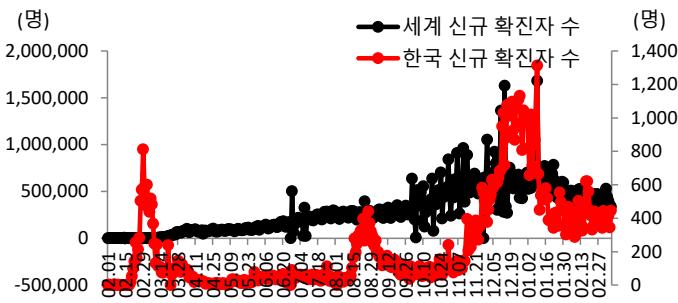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

SK증권 리서치센터

2021년 3월 10일 수요일

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간 증가 추이

세계 신규 확진자 338523명, 한국 신규 확진자 446 명



출처: WHO

코로나19 확진자/사망자/완치자

400명대 중후반…거리두기 상향 가능성

2021-03-10 8:23 갱신

	세계	한국	중국	미국	인도	브라질	기타
확진자수	117,961,938	93,263	90,002	29,782,946	11,246,380	11,055,480	95,476,813
(전일대비)	338,523	446	8	60,805	16,982	36,136	7,078
사망자수	2,615,633	1,645	4,636	538,628	157,985	266,614	2,184,753
(전일대비)	7,078	3	-	787	95	1,114	5,866
완치자수	93,629,192	83,900	85,182	20,522,962	10,899,394	9,782,320	72,778,396
(전일대비)	553,450	426	10	186,301	16,596	25,142	511,276
의심환자							

후베이*는 중국 통계에 포함됨.

출처: WHO, Wuhanvirus.kr / WHO 발표 기준. 언론 보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매크로 및 금융시장 Insight

해외

● 백신 여권'이 뭐길래..유럽도 중국, 태국도 도입 검토

- 코로나19 국면에서 여행이 고품 여행객들을 위해 이른바 '백신 여권'을 도입하는 세계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
-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여행할 수 있는 '권리'를 주자는 것
-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제도 도입 준비 과정에 착수

● 세계적인 공급부족 사태 속 …중국, 반도체 쓸어 담는다

- 9일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올해 1~2월 수입한 반도체 소자가 총 964억 개로, 전년 동기 대비 36% 증가했다는 소식
-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

● "러시아, 코로나19 백신 '스푸트니크V' 이탈리아에서도 생산키로"

-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'스푸트니크 V'를 이탈리아에서도 현지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
- 푸트니크 V 백신의 이탈리아 현지 생산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며, 올해 말까지 1천만 도스(1회 접종분)가 생산될 예정

국내

● OECD, 한국 성장을 3.3%로 상향 "올해 코로나 이전 회복"

- OECD가 올해 한국이 지난해 내놓은 기존 전망치(2.8%)보다 0.5%포인트 높은 3.3%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
- 특히 주요 20개국(G20) 가운데 한국 등 7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

●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…4차 유행 악화 우려

-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"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언제든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위태로운 상황"이라고 우려
- 정부는 이번주 확산세를 주시해 이번주 일요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

● 코로나19 여파로 '2020 사교육비' 1조원 줄었다

-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2020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 32만 2,000원보다 줄어든 28만9,000만원을 기록
- 코로나19 상황에서 '교육양극화'는 지속.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사교육비는 50만4,000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 9만9,000원의 5배에 달함

산업/기업 Insight

해외

● 美 마크 코로나 치료 후보물질 바이러스 수치 ↓

- 개발 진행중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과 임상시험 결과 공개
- 실험 결과 피험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향후 임상 2/3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

● '작년 역성장'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, 올해 9% 성장 예상

-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역성장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수요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
-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3억 6천만대로 작년대비 9%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4천만대로 작년 대비 25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● K조선, 1조6,000억 수주 잭팟

- 국내 조선업계 '빅2'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1조6,000억원에 달하는 수주 낭보를 전함
-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장기화로 부진했던 조선업계가 끝내 녹을 털고 순항중
-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라이베리아, 오세아니아, 유럽 소재 선사들과 총 8,350억원 규모의 선박 8척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

국내

●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등 신속제품화 돋는다

-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올해 중소 첨단 혁신 의료기기 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과 임상지원 업체 총 95개를 선정
- 특히 생산 및 수출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업체 품질관리 지원과 맞춤형 임상지원을 통해 신속 제품화 집중 지원

● 은행·저축은행 예대율 완화조치 연말까지 6개월 연장

-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
-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지난해 4월 발표돼 이번이 2번째 연장
- 우선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

● '보복 소비' 되살아난 백화점…주말 매출 코로나 이전 상회

- 지난 주말 백화점과 아웃렛 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이전 수준을 뛰어넘음
- 특히 야외에 있는 아웃렛에는 주말 내내 인파가 몰렸는데, 5~7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8% 증가
-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임